

#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5. 9. 4~2015. 9. 9

출장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자: 이백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 출장기간: 2015. 9. 4(금) ~ 9. 9(수) (5박 6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백진	

4. 출장목적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하여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 개발계획 등을 파악하고, 본 과제의 한국, 북한, 러시아의 국제협력을 통한 도로사업 개발방향 등에 대해 활용
  - 러시아 정부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를 개최하며, 극동러시아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이 참여
  - 우리 정부도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정부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참여하여 인프라 개발 회의예정
- 금번 출장은 동 포럼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도로사업 개발을 위한 관련국들의 정책동향,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토론, 정부 및 발주처 지원 등을 수행하고자 함
- 또한, 북-중-러의 접경지역 도로에 대한 실제 답사를 통해 극동러시아 도로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II. 출장일정

날짜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장소	주요 수행업무	관계자
9. 4	인천 공항	블라디 보스토 크		인천 출발(12:20) → 블라디보스토크 도착(16:00)	OZ570
9.4 ~9.5	블라디보스토크		Far East University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관련 정부 회의 지원	
9.6 ~9.8	하산, 자루비노 항, 우수리스크 등		현장조사	북-중-러 접경지역 도로 현황 조사	
9.9	블라디 보스토 크	인천 공항		블라디보스토크 출발(15:50) → 인천 도착(17:20)	OZ569

### III. 수행사항

#### 1. 동방경제포럼

□ 일시 및 장소: 9월 4일 ~ 5일 극동러시아 대학교

□ 주요 참석자

-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정관계 인사들과 전문가 등 약 1,000명 참석

□ 주요 행사

- 동방경제포럼의 주요 행사는 각국들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섹션 개최, 경제협력, 교통 및 물류교류 협력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음

#### 2. 제9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참관

□ 일시 및 장소: 9월 5일 09:00~10:30 블라디보스톡(연해주정부청사)

□ 주요 참석자

-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수석대표), 강희엽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해양수산부, 통일부,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관계자 외 관계자 20여명 참석
- 쉘레이킨 러 극동개발부 차관(수석대표) 외 관계자 20여명 참석

□ 주요 논의사항

- 교통 관련해서는 극동지역 인프라 구축, 교통·물류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기타 한국 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의 애로사항 해결 등 건의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한·러 조인식 전경>



<러시아 대표 발언 전경>



<한국 대표단>



<러시아 대표단>

### 3. 현장 조사

□ 일시 및 장소: 9월 6일~8일

□ 북중 접경지역 도로 및 항만 현황 조사

○ 블라디보스톡~하산, 크라스키노~훈춘 도로현황 조사

- 블라디보스톡 주변 고속도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지방 지역의 도로 상태는 공사지역이 많았으며, 주행성은 높지 않았음
- 현지에 자루비노항과 포시에트항의 물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과거 포시에트항은 중고 자동차 수출입의 주요 거점항이었으나, 과거에 비해 물동량은 거의 없는 상황
- 중·러 접경지역인 크라스키노~훈춘을 왕복하는 화물량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변 도로변에 국경을 통과하려는 화물차량들의 대기행렬이 많음(아래 사진 참조)

○ 우수리스크~수이펀허 도로현황 조사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수리스크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도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큰 교역지점인 우수리스크와 수이펀허 도로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도로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실제 화물차량의 이동은 많지 않았음

<극동러시아 주요 도로>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고속도로>



<블라디보스토크→하산 방향 도로(비포장)>



<자루비노 항>



<중·러 접경지역(훈춘~크라스키노) 통과화물 대기 전경>



<중·러 접경지역(훈춘~크라스키노) 국제버스통과 전경>



<중·러 접경지역(훈춘~크라스키노) 국제버스 정류장>



<포시에트 항>



<하산 비포장 도로>



<중·러 접경지역(수이펀허~우수리스크) 국제버스 통과 전경>

### 3. 시사점

-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한·러간 투자 육성에 대한 논의와 한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주로 많았음
  - 러시아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블라디보스토크를 투자자유항으로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 중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러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됨
- 장래 북한의 나진을 통해 연결되는 하산, 크라스키노 주변 도로의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며,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비(약 3시간 이상)되어 향후 도로를 통한 물류 운송을 위해서는 고규격 도로의 신규 건설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하산지역은 세계자연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사지역으로 나진과의 도로연결에는 많은 장벽들이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러간 도로를 통한 물류수송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로 연결되는 것으로, 향후 나진~하산간 도로가 연결되면, 이를 통한 물류수송의 빠른 증가가 기대됨

## IV. 부록

없음